

어릴 때 만화책 좋아하셨나요?

- 박수동
- 고인돌
- 스크류바
- 빠비코
- 오성과 한음
- 홍길동과 헤딩박



고인돌의 결론

- 고인돌의 고민, 열등감 -
 - 난 새처럼 날 수도 없고...
 - 헤엄은 돌고래보다 느리고...
 - 달리기는 치타보다 느리고..
 - 힘은 고릴라보다도 약하고...
 - 그런데도 왜 나는 살아야 하나...
- 고인돌의 나름대로의 해결
 - 사람이 머리가 더 좋은 것 같아..

어린시절 저의 결론

- 다른 동물들보다 좀 더 머리가 좋은 존재.. 좀더 진화된 존재.. 그래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존재..라서 참 다행이다
- ...라고 생각. 우리가 머리가 더 좋아서. 만물의 영장이었구나..
- 바퀴벌레가 도구를 만들어 쓰고 조직적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다스리지 않아서 다행이란 생각.. 어릴 때..

하나님의 결론

- 사람은, 동식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image, likeness)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regent)으로 창조된 존재다.
 - 단지 머리가 더 좋은 존재가 아니다.
 - 단지 도구를 만들 줄 아는 존재가 아니다
 - Hyatt Regency hotel (이 호텔에서만큼 왕처럼 누려라)
 - 신분이 '하나님의 왕국'의 왕(mediator, regent)으로 창조되었다
 - 증거?
 - 사람들이 나 무시하면 화가난다.
 - 누가 내가 시키는 대로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
 - 나를 떠받들어주고, 아부하면, 알면서도 좋다.
 - 어디가서 나를 반겨주면 좋고... 반겨주지 않으면... 화가난다.
 - → 왕이고 싶은거다.

왕으로 지음받은 존재

-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이유는
 - ‘하나님의 왕국’에서
 - ‘왕’ (대리인, regent)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음 (for the purpose of *rulership*)¹
 -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image)로 만드셨다.
 - Representative 역할을 해야하니까. 왕역할 해야하니까.
 - 그냥 머리가 더 좋은 존재, 도구를 쓰는 존재, 더 진화된 존재가 아니다.
 - 창 1:26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dominion).”
 - Dominion: מְדָבָר (라다) - 밟다, 지배하다, 통치하다 (cf. 민 24:19).
 - 왕을 의미함.
- » ¹. Paul Benware, *Believer's payday*; Jerry M. Hullinger, *New Testament Life & Belief*.

왕으로 지음받은 존재

- 창 1:28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subdue).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모든 생물을 지배하라(dominion)..”
 - Subdue: שָׁבַע (카배시)- to bring into bondage (종으로삼다). 정복자/왕처럼
 - Dominion: הָרָדָ - (라다) - 밟다, 지배하다, 통치하다
- 창 2:19 “...아담이 그것들을 [들짐승, 날짐승] 무엇이랴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랴 부르든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왕이란 뜻

왕으로 지음받은 존재

- 따라서 에덴동산이 첫번째 '하나님의 왕국'이었던 것임.
 - 아담과 이브는 왕이었던 것임.
 - 즉 하나님이 대리왕(regent)을 두고 통치하시는 영역 (하나님의 왕국, 신정통치국가)이 되었음.
 - 그래서 고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계획하에 사람이 동식물과 온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위치를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함.
 - 시 8: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왕으로 지음받은 존재

- "The Triune God deliberately gave mankind the authority "to rule. . .over all the earth" (1:26, 28) and to "subdue" it (1:28). Part of their privilege and responsibility was having authority over the earth. Adam and Eve were to be co-rulers with the Lord God over this planet. Fellowship and rulership were theirs." (Benware, *Believer's Payday*).
- "God had always ruled in his eternal kingdom, but now he had localized his rule in the garden, at a particular time, through a mediator, the man and the woman." (Hullinger).

왕으로 지음받은 존재

- Theocracy(하나님의 왕국)의 한 특징은 그것이 성공하려면 subjects and mediator의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
 - 그러나, 첫번째 커플이 불순종했을 때 the theocracy was shattered.
 - So, physical death came, spiritual death came, and the creation was cursed. Paradise had been lost. The theocracy was lost.
 - Will the theocracy ever be restored? This will begin the plot line of the entire Bible until the Messiah returns to earth and restores paradise and kingdom of God that are lost (Hullinger).
 -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다.

왕으로 지음받은 존재

- 사람이란 존재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다음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름을 지어라...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 한마디로 너희가 왕이다.. 란 말씀이셨습니다.
-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 사람이 원래 창조될 때 그런 목적으로, 그런 용도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 그러나 왕이 될 때가 있고, 종이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를 잘 가려야 합니다.. 지금은 종이 될 때입니다.

왕으로 지음받은 존재

- **여러분은 왕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왕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은 본능이다.**
 - 이 욕구가 세상에서 충족이 안될 때 그는 속에서 병이 든다. 잘난척 하게되고.. 실제보다 자신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어하고.. 어떤 자매님은 자신은 집에서 나갈 때 몇 개의 가면을 쓰고 나간다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는 그 가면을 벗고, 외로움과 열등감에 시달린다고..
- **하나님도 당신이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
 - 그래서 함께 공동상속자로 삼으셨다. 다가올 세상에서 함께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서길 원하신다.

왕으로 지음받은 존재

- **그러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 때를 뒤집으면 모든 것이 어긋난다.
 - 학생이 공부할 때에 놀면, 나중에 놀아야될 때 못논다.
 - 지금은 섬길 때지 섬김 받을 때가 아니다 (마 20:20-28).
 - 지금은 낮아질 때지 높아질 때가 아니다.
 - 높아지고, 섬김받게될 때는 천년왕국에서...
 - 그래서 진짜 왕이 되기 위한 길은 겸손과 낮아짐의 길
 - 예) 예수님, 사도들처럼
 - 진짜 왕이 되기 위한 길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왕으로 지음받은 존재

-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란 원래 창조의 목적을 일부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 구원받았으므로, 영적인 생명을 회복했지만, 아직 여전히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 타락이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상실한겁니다. 왕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 하나님 빼고, 위에 아무도 없는, 왕이었던 아담이, 하나님 말고 누구에게도 순종할 필요가 없었던 아담이,
 - 사탄에게 순종하면서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고후 4:4).

왕으로 지음받은 존재

- 그래서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8:44), 마귀와 죄와 육신에게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끝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란 잃어버렸던 왕권을 되찾아가는 과정에 놓여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왕권을 마지막 아담(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만 순종하심으로, 되찾으셨습니다.
 -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구원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 그리스도인들에게 왕처럼 다스리는 일을 맡기신다고 약속하십니다(계 2:26; 계 3:21; 5:10; 롬 8:17-18)
 - 그저 예수님 믿으면 지옥갈 운명에서 천국가게 된다...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부족합니다

왕으로 지음받은 존재

- 따라서 이 땅에서의 믿음생활이란, 미래에 왕이 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 원래 왕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왕노릇하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꿈틀대고 있습니다.
 -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전 3).
 - 이 시대에 왕노릇 배우는 사람들은 종노릇하는 것으로 배우는 겁니다. 이 시대엔 섬기는 노릇으로 배우는 겁니다. 지 몸육체로 다스리려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건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 너희중에 가장 큰자는 섬기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마 18:4; 23:11; 눅 9:46; 22:24). 우리는 이 시대에 섬기면서 다스리는 걸 배우는 겁니다. 아주 오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왕으로 지음받은 존재

- 구약시대에 부자되고 건강해지는 약속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신거다...라고 했을 때 한 자매님이 실망하신 일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 구약의 healthy, wealthy, demon-free gospel 이 신약 그리스도인에게 준 약속이 아니라면, 열심히 주님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해도, 건강해진다는 보장이 없고, 부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으면, 왜 열심히 수고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 그 이유는 1) 왕국때문이고, 2) 이미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지음받은 존재

- 왕국때문 (미래)
 - 고전 9:19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24.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 구원의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삶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 (과거)
 - 고후 5:15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왕으로 지음받은 존재

- 성령님의 강권하심 때문 (현재)
 - 빌 2:13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라.”
 - 고후 5:14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